

지역 소식통

정읍, 2024년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추가 접수

정읍시는 겨울철 시설하우스 난방에 유류 사용량이 많은 농가들의 난방비 절감을 돕기 위한 '2024년 시설원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을 7월 17일까지 추가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다결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등 각종 보온시설을 지원한다. 농가당 보조금 55%, 지부당 45%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출하약정을 체결하거나 농작물 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GAP 농산물 및 친환경·저탄소농산물 인증, 농산물 의무저조금을 납부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돼 대상자 선정 시 유리하다.

사업 신청은 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7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립도서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제공

정읍시립도서관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챗봇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제공한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메신저에서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정읍시 도서관'을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다.

챗봇 서비스 이용 시 최초 1회 로그인으로 추가 로그인 없이 도서관 회원증을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어 기존의 실물 회원증을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도서관 회원증 △개인과 가족 도서 대출현황 △자료신청(상호대차, 바로대출 등) △도서관별 도서 검색 △전자도서관 △프로그램 접수 △책 읽기 마라톤 등 다양한 기능을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정읍시,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대상

정읍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과 자살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8600만원(국비 80%)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센터·W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이다.

심리상담 희망자는 사업 시행일 이후에 인정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보건소가 신청서류, 기준 중위소득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8회(회당 50분)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받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기준중위소득 따라 본인부담금(0~2만 4000원)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현재 2개소(김선희부부가족상담센터, 아이심리상담교육센터)가 접수·등록했고, 이후에도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인력·자격 기준을 갖추고 교육 이수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울과 불안을 겪는 시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으로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 정신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LPG용기 금속배관 교체 지원

정읍시, 시민 안전 위해 총 130가구 사업 추진

정읍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LPG용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읍면의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LPG용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무호스는 절단되기 쉽고, 노후화돼 가스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용기 보호함 등 추가 안전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3,575만원을 투입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중간 밸브인 퓨즈록 설

치를 지원한다. 또 압력조정기 교체와 차양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가구는 총 130가구이며, 가구당 사업비는 총 27만5,000원으로 자부담은 5만원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7,602가구의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2021년부터는 취약계층에서 일반 단독주택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추진 중이다.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4개소 가스설비업체가 해당가구를 방문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자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과열, 가스 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청소년복지실무위 위촉·실무회의 개최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통합 서비스 제공 등 협조체계 구축

고창군이 26일 '고창군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고창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필수연계기관과 청소년 유관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 위촉식, 2024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보고, 위기청소년 사례 및 지원방안,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실무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최선임 인제양성과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내 학교 등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의 실무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위촉되었다.

임기 내 반기별 2회, 연 4회 회의를 진행하여 위기청소년 가정과 대상자 맞춤형 개입방안을 논의하고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유관기관 간 실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고창군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사업 운영 계획 △2024년 상반기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기관 연계 및 지원 방향 △위기청소년 사례 및 지원 논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고창군자원봉사센터가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신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과 연계해 '착한 한끼 나눔행사'를 열었다.

부안군자봉센터, '웃음나눔 재능나눔' 봉사활동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배)는 26일 보안면 제내경로당을 찾아 '웃음나눔 재능나눔'이라는 주제로 전문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자

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의 후원과 부안군자원봉사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을경로당에 제내마을 어르신 25명과 전문봉사자 15명이 모여 문화활동과 이마용 서비스, 발마사지,



서금요법, 귀마사, 점심 식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전문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입을 모아 "더운 여름의 시작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봉사활동 서비스를 받은 마을의 어르신들은 "마을 경로당에 모여 이웃들과 함께 편안하게 다양한 전문봉사를 경험할 수 있어서 참 기쁘며, 바쁜 일상속에서도 잊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전북자봉센터, 어르신 300명 삼계탕 대접

고창군 고창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은서)가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 신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성문) 등과 연계해 신림면 다목적 체육관에서 '착한 한끼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어르신 300명이 참석하여 삼계탕을 비롯한 잔치음식들과 전문봉사활동을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고창군 자원봉사단체 14개 팀 총 100여명의 봉사자들이 서금요법, 네일아트, 손맛사지, 오일훈증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의 박차가 운영돼 뜨끈한 삼계탕과 잡채

등을 나눴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소리새의 팝플룻 연주와 CEG악단의 악기공연과 노래, 신림면 농악회의 농악까지 다채로운 활동으로 즐거운 하루를 선물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최은서 이사장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덕분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